아웃도어의 계절…노스페이스와 '다이나믹'하게 런! 런!

다이나믹 트레일·하이킹 컬렉션 선봬

러닝화 'DYF 6F' 에어볼로 충격흡수 탁월
초경량 재킷·쇼트팬츠 아웃도어 활동에 딱
폴리스판 소재 활동성 높인 레깅스 팬츠도

"달려라! 가보지 못한 길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www.thenorthfacekorea.co.kr·대표 성기학)가 S/S(봄/여름)시즌을 맞아 '다이나믹'을 키워드로 한 '다이나믹 트레일 컬렉션'과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을 선보였다. 트레일 러닝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다이나믹 트레일 컬렉션'은 내구성과 초경량화를 실현한 아웃도어 러닝화 '다이나믹 트레일(DYNAMIC TRAIL)'과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을 도와주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은 가까운 근교 산행, 하이킹 등 가벼운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다.

●자연 속을 달리는 아웃도어 러닝족을 위한 '다이나믹 트레일 컬렉션'

그동안 로드러닝을 즐겨왔던 러닝족들이 비포장도로나 산길, 들길 등 자연 속을 달리는 아웃도어 러닝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스페이스의 2014년 S/S 시즌 신제품인 다이나믹 트레일 DYF 6F(DYNAMIC TRAIL DYF 6F·14만원)는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부위별 충격흡수 테크놀로지인 에어볼 시스템(Air Ball System)을 적용한 초경량 아웃도어 러닝화다.

발바닥 전체의 하중을 고려해 배열한 77개의 에어볼이 발이 받는 부위별 충격을 흡수해 쿠셔닝과 착화감이 뛰어나다. 가볍고 튼튼한 재질의 갑피 보강원단과 신발 내부가 보이는 시스루 구조의 모노 메쉬(Mono Mesh) 소재를 적용해 무게를 최소화했다. 강력한 그립력을 지닌 다이나믹 러그 배열 아웃솔(밑창)로 어떤 길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한다.

다이나믹 PT 라이트 재킷(DYNAMIC PT LIGHT JACKET·9만9000원)은 가벼운 산행부터 아웃도어 러닝,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초경량 윈드재킷이다. 원단 표면을 고밀도 DWR(Durable Water Repellent)로 가공해 발수 기능을 강화했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탁월하다. 빨리 말리는 속건 기능이 우수한 나일론 립스탑 원단을 채용했다. 전체적으로 슬림핏(Slim Fit) 라인을 적용했다.

다이나믹 2 쇼츠(DYNAMIC 2 SHORTS·5만5000원)는 쇼트 팬츠 제품이다. DWR 발수 코팅 처리된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로 쾌적성을 배가시켰다. 아웃도어 러닝, 하이킹 등 아웃도어 활동 시 레깅스와 함께 레이어드(겹쳐입기)하면 좋다.

●가까운 교외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아웃도어룩,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요즘, 야외 활동을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에 제격인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을 선보인다.

다이나믹 하이킹 DYS 1F(DYNAMIC HIKING DYS 1F·20만원)는 쿠셔닝과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X-CROSS 형태의 파일론 미드솔(중창)을 적용했다. 가벼운 하이킹 등 아웃도어 활동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미 미드 컷의 초경량 등산화다.

원색 계통의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내구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합성피혁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열이나 외부 손상에 강한 초경량 립스탑(Ripstop) 원단을 사용해 경량성을 향상시켰다.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해 방수 및 투습 기능도 뛰어나다.

다이나믹 드라이 재킷(DYNAMIC DRY JACKET·21만원)은 국내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뛰어난 하이벤트 3D(Hyvent 3D) 원단을 적용했다. 쾌적한 착용감과 활동성을 자랑하는 신개념 테크니컬 윈드재킷이다. 안감 표면에 미세한 요철 구조를 적용해 재킷 내부의 공기순환 효율을 배가시켰다. 후드 탈부착이 가능하며 휴대용 파우치가 포함돼 휴대하기도 좋다. 입체 패턴과 경량 원단을 사용해 움직임이 편하고 자연스럽다.

다이나믹 테크 레깅스(W'S DYNAMIC TEK-LEGGINGS·8만5000원)는 폴리스판 소재로 활동성을 높인 레이어드 타입의 여성용 레깅스 팬츠다.

반복된 패턴의 전판 프린트를 통해 다이나믹 하이킹 라인의 경쾌하고 스피디한 느낌을 살렸다. 다이나믹 2 쇼츠와 함께 코디하면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 노스페이스 다이나믹 컬렉션 제품들

다이나믹 드라이 재킷 남·여 ▶

◀ 다이나믹 하이킹 DYS 1F(왼쪽)와 트레일 DYF 6F

국내 아웃도어 No.1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봄철을 맞아 '다이나믹'을 키워드로 '다이나믹 트레일 컬렉션'과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을 선보였다. 아웃도어 러닝족과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아웃도어 제품들이다. 다이나믹 재킷을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 모델 공효진. 사진제공 | 노스페이스

영원무역이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한 베트남 의류기증식. 영원무역은 기업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사회공헌도 세계화

월드비전 등 NGO와 손잡고 34개국 지원

㈜영원무역(대표이사 성기학)은 No.1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나이키, 에이글, 폴로 스포츠 등 해외 브랜드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중국 칭다오, 베트남 하노이, 엘살바도르 등 세계 4개국, 20여곳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으며 약 6만명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영원무역은 '기업은 수익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경영 철칙아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Warm Clothes for the Children'을 통해 월드비전,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등 NGO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국내 소외계층 및 북한, 세계 곳곳의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방한복과 긴급구호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까지 ㈜영원무역과 ㈜영원아웃도어는 월드비전 249만장 기부를 포함해 약 423만장의 의류 및 용품을 국내 및 해외 총 34개 국가에 전달했다.

●교육·환경·의료 등 전방위 지원 펼쳐

방글라데시 아동교육을 위해 월드비전과 함께 7개 학교 설립 및 캠퍼스 재건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한림대에 '국제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 기금을 위탁해 제3세계 대학생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고 있다.

㈜영원무역과 자매회사인 ㈜영원아웃도어는 NGO단체 월드비전과 함께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돌로 지역에 식수관련 사업을 후원했다. 차량을 이용한 급수 및 파이프라인 건설, 임시 화장실 설치, 오물 처리 등 구호 활동을 펼쳤다.

의료와 보건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3세계의 백신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의 방글라데시 일본뇌염 예방 백신 개발을 후원해 오고 있다. UN의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후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1만5000명을 지원했다.

환경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영원무역은 공장이 위치한 방글라데시, 베트남과 중국에서 지역 생태계 회복과 주민복지를 위한 나무 심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사막화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에 160만 그루의 개간 산업을 실시했다. 다카에는 공장 내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산업시설의 롤 모델을 제시했다. 양형모 기자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대비해 아웃도어 의류를 커플룩으로 입는 커플들이 늘고 있다. 컬럼비아의 프라임로즈패스재킷을 입은 커플. 사진제공 | 컬럼비아

변덕스러운 봄 날씨…커플룩도 아웃도어가 대세

세련된 컬러·디자인…일상복으로 OK
기능성도 뛰어나 일교차 큰 날씨에 딱

따뜻함을 넘어 한낮에는 땀이 나다가도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세우게 만드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아침마다 "오늘은 뭘 입어야 하나"하는 고민이 길어진다. 이럴 때는 역시 아웃도어 의류가 딱이다. 가볍고 세련되어 보이면서도 기능성이 뛰어나다.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체온도 적절하게 지켜준다.

봄옷 고르기 힘든 계절에 연인에게 보기도 좋고 입기도 좋은 아웃도어 커플룩을 슬며시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 남자들이라면 지난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때 '잃은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커플룩, 아웃도어&일상복 활용도 높아

컬럼비아의 '프라임로즈 패스 재킷'(29만8000원)은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함께 착용하는 제품에 따라 아웃도어 활동부터 일상복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재킷이다. 사파리형 스타일에 캐주얼한 멋을 더해 커플룩의 느낌을 강조했다. 색상과 디테일에 차이를 주어 '무심하게 맞춰 입은 듯한' 세련된 커플룩을 연출하기에 좋다. 땀 흡수 배출이 뛰어난 옴니위크 이뱁 소재를 사용했다.

노스페이스의 데일리 아웃도어 라인인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도 커플들을 위한 '워렌 재킷'(남성 18만8000원·여성 17만8000원)을 출시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래글런 소매(어깨 너머로 연장되는 소매)와 바디라인에 딱 맞는 인체공학 구조의 슬림핏 패턴이 특징이다. 편안하면서도 몸놀림이 자유롭다.

강렬한 원색과 디자인으로 정통 아웃도어 활동에 어울리는 커플룩을 선보이는 브랜드도 있다. 북유럽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노스케이프'는 오렌지 톤의 남녀 방수 재킷을 봄 아웃도어 커플룩으로 선보였다. 디자인은 다르지만 오렌지 컬러를 잘 매치시키면 훌륭한 커플룩으로 변신한다. 슬림한 핏과 강렬한 이미지의 배색으로 세련된 아웃도어룩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성용 '더미작스 방수재킷'(49만9000원), 여성용 '얼티매테크 프로실드 방수재킷'(59만9000원)이 나와 있다. 양형모 기자

도원·백리향 '팀스 키친 셰프 초청 갈라 디너' 개최

더 플라자의 중식당 '도원'과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셰프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미각을 사로잡은 미슐랭 레스토랑 '팀스 키친(Tim´s Kitchen)'의 오너 셰프 라이 야우팀(Lai Yau-Tim)을 초청해 24일과 25일에 진행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 도원에서는 팀스 키친 메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광동식, 그 궁극의 맛(Ultimate Flavor of Cantones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갈라 디너에서는 도원의 리우 위앤런 수석 셰프와 백리향의 왕전생 셰프가 한 팀이 된다. 두 셰프의 환상적인 하모니와 함께 봄 제철 재료로 만든 팀스 키친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맛볼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